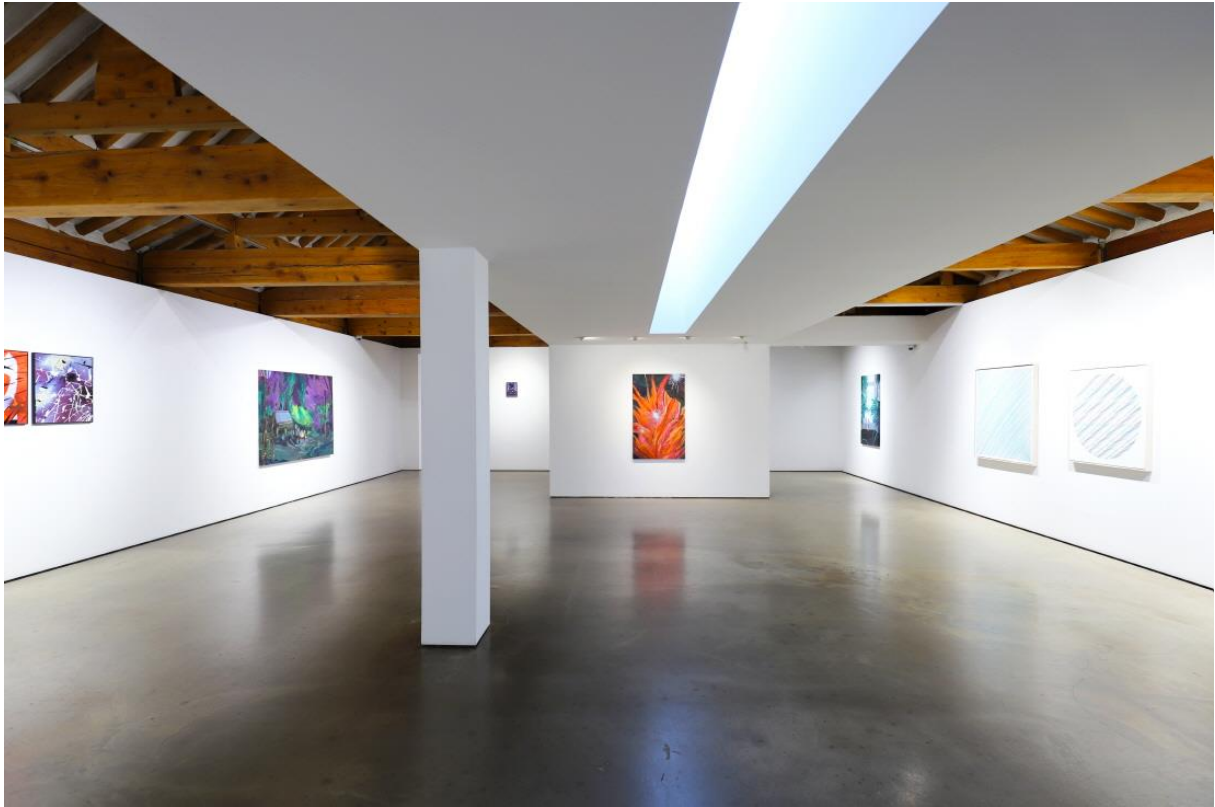


《아이콘(ICON)》



전시제목 : 《아이콘(ICON)》

전시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2021년 7월 18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오프라인]**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름 [온라인]

(OROOM, online.hakgojae.com)

참여작가 : 김은정, 박현정, 이동혁, 임선구, 이정호, 지근욱 등 6인

출 품 작 : 총 34점 (회화 33점, 부조 1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조윤성 ch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623-20210718_아이콘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1년 6월 23일(수)부터 7월 18일(일)까지 학고재 본관 및 학고재 오름¹에서 청년작가 단체전 《아이콘》을 연다. **김은정**(b. 1986), **박현정**(b. 1986), **이동혁**(b. 1985), **임선구**(b. 1990), **이정호**(b. 1984), **지근욱**(b. 1985) 등 6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아이콘'을 화두 삼아 동시대 청년의 회화를 조명한다. 학고재가 불러낸 이들은 '포스트 인터넷 세대'로 지칭되는 30대 초중반의 작가들이다. 청소년기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매체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대학 시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으며, 소셜 미디어 환경에 탁월하게 적응했다. 디지털 매체를 누구보다 잘 다루는 동시에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또한 간직하고 있다. 전시가 가리키는 아이콘의 개념은 다양한 범주를 넘나든다. 디지털 아이콘, 도상으로서의 아이콘, 함축적인 아이콘적 성질에 대한 생각을 두루 포괄한다. 매체 범람의 시대, 회화의 물성을 고수하는 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자리다.

참여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²에서 개인전을 선보인 작가 중 선정했다. 2019년 11월에 개인전을 선보인 지근욱은 국내외 다양한 전시 및 아트페어에 꾸준히 이름을 알리며 미술계와 대중으로부터 크게 관심 받고 있다. 2019년 12월에 개인전을 연 박현정은 대표적인 신생공간 '취미가'의 공동 운영자로 최근까지 활동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SeMA 카페+ 프로젝트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및 11월에 각각 개인전을 진행한 이동혁과 임선구는 다양한 기획전 및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리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개인전을 연 이정호는 주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다. 윤진섭 미술평론가는 당시 전시 서문에서 "추(醜)를 통해 거꾸로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평했다. 올해 4월 개최한 김은정 개인전 《가장 희미한 해》는 아트 바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5개의 전시'로 소개해 화제가 됐다.

'청년'은 1896년 동경 유학생들의 잡지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청춘의 열정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진취적 이상을 모색하는 신선한 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는 청년을 호명했다. 학고재는 청년작가들의 화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동시대 미술계의 동향을 살피고, 내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박광수(b. 1984) 개인전 《영영 없으리》(2019)와 장재민(b. 1984) 개인전 《부엉이 숲》(2020)을 선보였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우성(b. 1983)과 허수영(b. 1984)의 개인전을 예정하고 있다. 《직관 2017》(2017), 《모티프》(2018), 《프리뷰》(2019) 등 단체전을 통하여 청년세대 작품세계를 폭넓게 조명하기도 했다.

¹ Hakgojae OROOM, online.hakgojae.com.

² 학고재가 동시대 유망작가들의 화면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팔판동 소재의 전시 공간이다.

2. 작품 및 작가 소개



김은정
〈식물수업〉
2021
캔버스에 유채
130x194cm

김은정은 자신의 경험과 허구적 상상을 뒤섞어 회화 언어로 재구성한다. 〈식물수업〉(2021)은 해외여행 중 참여한 식물 수업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점심 식사 시간 동그랗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모닥불을 쬐는 밤 풍경으로 바꾸었다. 〈붉고 큰 것〉(2021)은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의 책에 묘사된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소설 같은 역사의 현장, 축제에 피어오른 불의 모습을 상상해 그렸다.



김은정
〈붉고 큰 것〉
2021
캔버스에 유채
130x80.3cm

1986년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시각디자인과 복수전공 졸업 후, 2019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에이라운지(서울), 가변크기(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일현미술관(양양), 한원미술관(서울), 의외의조합(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2016년부터 '찬다 프레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스튜디오 겸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책을 만드는 출판사다.



박현정
〈이미지 (106-10)〉
2021
종이에 아크릴릭, 파스텔, 펜
60x55cm

박현정의 회화는 손과 디지털 매체의 협업으로 그린 이미지다. 디지털 드로잉을 제작한 이후 회화 재료로 캔버스에 옮겨내는 방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10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아이패드를 활용하게 되면서 손의 움직임이 드로잉 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됐다. 〈이미지 (106-10)〉(2021)의 붉은색 선은 터치 스크린 위에 손가락을 사용해 그린 디지털 드로잉을 실제 캔버스 위에 재현해낸 것이다. 디지털 드로잉 과정에서는 그리기와 지우기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미지 (109)〉(2021)의 회색 배경 위를 지나간 지우개 틀의 흔적이 가장 다채로운 색상을 드러낸다. 화면의 층계가 명확하다.



박현정
〈이미지 (109)〉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아크릴릭
과슈
116.8x91cm

1986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2014년 동 대학원 석사를 취득했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합정지구(서울), 아카이브 봄(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서울) 신진작가워크숍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카페(서울), 소쇼룸(서울), 오픈베타공간 반지하(서울)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트스페이스 휴(파주), 그라시 박물관 응용미술관(라이프치히, 독일)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취미관 TasteView 趣味官》(2017~2018)과 《굿-즈》(2015)의 기획에 참여했다. 스튜디오 파이(서울)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혁

〈비린 지저귀미_5〉

2018

캔버스에 유채

162.1x227.3cm

이동혁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자란 작가의 신앙에 대한 의문이 회화의 소재가 된다. 〈비린 지저귀미_5〉(2018)은 인천에 위치한 폐교회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신자들이 떠난 후 폐허가 된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두려움과 위안을 동시에 느꼈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끈질기게 좇는 맹목적인 믿음의 형상을 얼굴 없는 성가대의 모습에 투영했다. 〈배꼽을 메운〉(2021)은 수원 소재 섬마을에 다녀와서 그린 작품이다. 해당 섬은 간척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무산된 지역이다. 성화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는 배꼽이 없다. 이동혁은 간척사업이 메운 바다를 배꼽에, 그리고 마을의 염원을 돌탑에 비유하면서 간절함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화면을 구성했다.



이동혁

〈배꼽을 메운〉

2021

캔버스에 유채

72.7x50cm

1985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13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17년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스페이스 나인(서울)과 에이라운지(서울)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서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대안공간 루프(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이정호

〈어느 비 오는 날에〉

2018

린넨에 유채, 아크릴릭

129.5x162.5cm

이정호는 질서와 혼란이 공존하는 장면에 주목한다. 도심 속의 공사 현장, 길가 언저리에 남은 얼룩, 오래된 건물의 유리창 위 물 자국 등이 소재가 된다. 이정호는 저마다 다른 시간성을 품은 흔적들로부터 우주를 상상하거나, 지난 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떠올려 본다. 〈어느 비 오는 날에〉(2018)는 지난 2018년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우울함을 투영한 화면이다. 비 오는 날 길에서 본 유리창의 모습을 캔버스 위에 재현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유성 도료와 수성 도료가 중첩하며 또 다른 얼룩을 이루어 낸다. 〈무제 II (P)〉(2019)에서는 동일한 작업 과정을 종이 위에서 실험한 결과물이다. 바탕 재료에 따라 질감이 달리 나타난다.



이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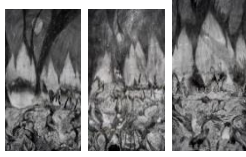
〈무제 I (P)〉

2019

종이에 유채, 아크릴릭

56x76cm

1984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2012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 순수미술전공 학사 졸업 후 2016년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순수미술학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갤러리마크(서울), 69 앨드리지(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쿡 프로젝트(뉴욕), 더 팩토리 LIC(뉴욕), 리히트파이어(뉴욕)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파리국제예술공동체(파리), 장생포 아트스테이(울산) 등의 레지던시에 입주한 이력이 있다. 현재 서울 및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임선구

〈산은 무너지느라 돌을 떨어뜨린다〉 연작

2021

종이에 혼합매체

왼쪽부터

280x146cm, 280x146cm,

290x146cm

임선구는 자신의 연필 드로잉이 “종이라는 연약한 바탕 위에 녹여낸 시간과 경험을 새로운 형질로 굳혀나가는 행위”라고 본다. 다양한 도상이 어우러져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을 이룬다. 〈산은 무너지느라 돌을 떨어뜨린다〉(2021) 연작은 평소 자주 오르던 산을 소재로 제작한 작품이다. 화면 속 산은 실재하는 산과 자의식의 세계를 동시에 상징한다. 불길처럼 일렁이는 산등성이 주위에 자동차, 고양이, 꽃, 누워있는 사람 등 일상에서 목격한 형상들이 불규칙하게 부유한다. 떨어질 듯한 바위의 형상과 콜라주한 자갈들의 존재는 단단해 보이지만 언제든 와해될 수 있는 인식세계의 암시다. 산 속 바위는 산을 견고하게 묶어주는 휴과는 다른 성격의 구성물이라는 생각에서 착안했다. 산이 바위를 떨구어 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개인의 신념이 특정한 상황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떠올렸다. 산으로부터 떨어진 돌들은 새로운 형태로 쌓여 또 다른 하나의 산을 형성하게 된다.

1990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갤러리조선(서울)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아카이브 봄(서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안산) 등에서 연 단체전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 일현 트래블 그랜트 특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지근욱

〈실제의 역동성 2420〉

2020

캔버스에 색연필

165x260cm

지근욱은 캔버스 위에 색연필로 촘촘한 선을 그어 구성한 회화를 선보인다. 〈실제의 역동성 2420〉(2020)은 200호 크기의 대형 캔버스다. 화면 중앙의 소실점을 향해 모여드는 수백 개의 선을 섬세하게 그어냈다. 지근욱의 화면은 착시효과를 이끌어낸다. 선들의 반복적인 집합은 전체의 화면에서 허구의 면적을 암시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의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한다. 색연필의 다양한 색채가 결코 섞이지 않으며 나열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하나의 색이 우선적으로 눈에 보인다. 보는 이의 시각이 색채를 관념적으로 뒤섞는다. 〈곡선의 자리 03〉(2021)에서 선은 또 다른 방식의 울동감을 드러낸다. 소실점이 사라지고, 물결처럼 뻗어나가는 무한한 파동의 암시다.



지근욱

〈곡선의 자리 016〉

2020

캔버스에 색연필

110x110cm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2년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후 2016년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아트 & 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노블레스 컬렉션(서울), 63아트(서울), 스페이스XX(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2017, 2018년도 크리스티 홍콩 정기 경매에서 열린 특별전에 참가했다. 추정가를 크게 뛰어넘는 가격에 작품을 낙찰시켜 주목 받았다.

3.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콘

박미란 | 큐레이터, 학고재 기획실장

아이콘의 어원은 그리스어 이콘(eikon)이다. 상(像)을 의미하는 단어다.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참된 모방과 허구적 환영으로 구분했는데, 그중 전자가 이콘이다. 여기에서 성상, 즉 원본으로서의 신적 존재를 모방한 대상의 개념이 유래했다. 그 의미가 확장된 바 아이콘은 사람이다.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대나 연대, 문화의 특성을 함축하는 인물을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아이콘은 한편 컴퓨터 모니터의 픽토그램이다. 복잡한 데이터 모음을 단순한 그림으로 함축한 비유적 기호다. 같은 맥락에서 은유와 의성어는 아이콘적인 발화다. 다층적인 의미와 감각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스크린이 송출하는 장면은 아이콘적 이미지다. 픽셀의 조합 사이 비어 있는 자리들이 착시와 상상에 의해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완결된다. 아이콘적 이미지는 총체적인 감각을 자극한다. 동시적 정보를 성글게 제시하며 보는 이의 정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오늘의 풍경은 아이콘적이다. 팬데믹이 시대의 아이콘이 됐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스크린 위 얼굴들도 아이콘이다. 동시에 흘러가는 세계 시간과 구글어스로 내려다본 지구의 풍경이 아이콘적이다. 인식이 날마다 감각과 통합된다. 시간도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하루가 소셜 미디어의 타임라인 위에서 재구성된다. 단발적인 소식들은 순차적으로 나열되지 않으며, 선호도와 성향을 인지한 알고리즘에 따라 재배열된다. 21세기의 문을 두드린 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게 됐다.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다른 눈으로는 가상을 바라보는 지금의 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서울의 청년 세대 회화에 주목해보자. 전시는 여섯 명의 아이콘을 불러내어 서른네 점의 아이콘을 살필 것이다.

실재와 가상의 층위

저마다의 함의를 지닌 아이콘이 박현정(b. 1986)의 화면을 유명한다. 일련의 회화는 '표본 실험(도1)'에서 출발했다. 곰팡이, 이끼, 세포, 화산재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기체의 최소 단위들을 그린 드로잉을 디지털 툴로 해체하고, 분류하고, 다시 먼지처럼 분쇄하는 과정을 거쳤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범람하는 이미지의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실험이다. 오늘의 매체환경 속에서 회화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일이란, 거센 파도에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모래를 쥐고 성을 쌓는 시도다. 이미지들을 회화의 물성으로 옮겨내는 일은 그래서 조심스럽다.

박현정의 작업 과정은 디지털 툴의 역할을 손으로 치환하려는 시도 같다.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이 개입하고, 디지털 드로잉이 캔버스에 전사된다. 펜과 붓, 잉크와 물감, 핀셋, 마스크 테이프, 에어브러시 등 온갖 도구가 동원된다. 실행 취소 단축키가 듣지 않는 실재의 화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매체가 협업하며 약속된 이미지로 나아간다. 프로그램의 정세도보다 세밀한 유기체의 몸짓은 필연적인 오차를 만들어 낸다. 가상을 바라보며 쌓은 현실의 견고한 모래성은 파도에 잠식되지 않을 최소한의 단서를 비로소 획득한다.

김은정(b. 1986)은 현실을 참조한 가상의 풍경을 그린다. 정서적 경험과 책 속의 서사, 타인과의 관계, 목격한 장면들을 뒤섞어 서사를 구성한다. 식물 수업이 벌어진 숲의 풍경에서, 현실의 낮은 허구의 밤으로 탈바꿈한다. 숲속에 피운 모닥불은 어느 책에 묘사된 축제의 현장으로 옮겨붙는다. 그 불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또 다른 화면 속에서, 익숙한 주변의 인물들로 대체된다. 소재의 범주가 넓은 만큼 매체의 선택도 다양하다. 김은정은 판화, 회화, 도자, 영상, 출판과 디자인 분야를 골뎠처럼 드나들며 작업한다. 화면 속 이야기는 저마다 단편적이고도 소박한 서사를 드러내는데, 마치 가상세계에 서식하는 이들의 일상을 포착해낸 장면 같다.

픽셀의 환영/현실의 픽셀

지근욱(b. 1985)이 나란히 그은 선분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장을 이룬다. 선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주어진 경로를 따라 일제히 나아간다. 전체의 화면에서 개별 선분의 움직임은 통합된 환영으로, 보다 아이콘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율동의 감각에 의해 선을 그은 몸짓은 숨은 각주가 된다.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색연필이다. 여러 색채가 혼합된 연필심을 굴러가며 선을 긋는데, 이에 따라 하나의 선은 서로 다른 비율의 혼합 색채를 지니게 된다. 색채를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개입한다. 프리즘을 통과하며 분산되는 빛처럼, 다색으로 취합된 전체 화면은 하나의 빛깔을 우선적으로 드러낸다. 지근욱의 회화에서 선과 색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낮은 정세도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시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환영을 이끌어낸다. 화면은 감각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정호(b. 1984)는 도심의 얼룩들을 수집한다. 길가의 그림자를 좇으며 세상 언저리에 남은 흔적들을 찬찬히 응시한다. 타인의 과거를 현재의 주관으로 반추하는 일이다. 차창의 물 자국, 쓰레기 주위의 때, 길목의 낙서, 또는 찢어진 벽보의 잔해들. 유채 물감의 물성은 도로에 흐르는 기름때의 질감과 연동된다. 흔적의 픽셀들을 중첩하여 이룬 총체적인 이미지는 아스팔트 위를 지나간 사건의 시간, 건물에 닿은 손때의 축적을 암시한다. 이정호가 주목하는 것은 생동하는 삶의 증거다. 실재하는 것들이 떨군 불가분 한 잔여물을 회화의 언어로 기록하려는, 풍경의 이면을 차용하는 사실주의다.

동시대 도시 환경의 얼룩, 정확히는 그에 대한 단편적 기억을 한 데 모은 화면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아이콘이다. 다양성의 증첩에 따라 작가의 감각과 기억도 재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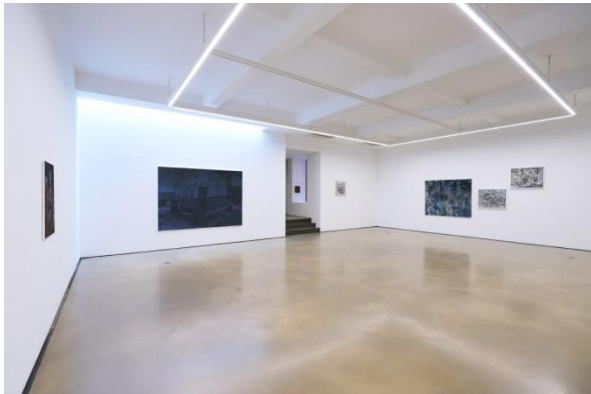
은유하는 도상들

이동혁(b. 1985)의 회화는 신앙의 문제를 다룬다. 관습적인 믿음의 실체에 관한 질문이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교리를 익히며 자란 작가의 의식 한편에는 늘 거대한 성상이 있었다. 신성한 믿음과 무정한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마음속에 조용한 의구심이 자라났다. 많은 경우 삶에 대한 의문이었고, 종종 죽음에 관한 물음이었다. 이동혁의 화면에 등장하는 형상들은 상징적이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우로보로스의 도상은 영원이라는 허상을 자조한다. 교회 의자 위에 위태롭게 쌓인 돌탑은 신화적 존재로서 '배꼽을 메운' 애절한 소망의 아이콘이다. 숨죽여 기원하는 돌맹이의 모습에 성상의 정체를 투영해보는 일은 부정과 비난이 아닌 자기 객관화에 가깝다. 한 걸음 떨어진 현실에 발 딛고,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이동혁의 회화가 드러내는 것은 신이 아닌 신자의 이야기다. 조심스러운 의구심에 바탕하여 관념을 재인식하는 시도다.

신화와 종교, 자연물과 미신을 연상시키는 도상들이 임선구(b. 1990)의 화면을 잠식한다. 임선구의 도상들은 언어적이다. 의식이 사유에 여과되고, 그림의 어법으로 서술된다. 그의 회화가 글이라면 산문보다는 서정시다. 주관적인 신화와 그에 관한 감정을 자유로운 운율에 실어낸 운문과 같다. 미묘한 시를 읊는 목소리는 흑연과 지우개다. 여기에 자갈 등 부피를 지닌 혼합재료가 뒤섞인다. 화면 속 크고 작은 서사들은 유기적인 관계로 공생하면서도,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며 들뜬 채로 부유한다. 전체의 화면이 환기하는 것은 일견 불안이다. 한편 꿈꾸듯 무구한 호기심이다. 임선구의 회화는 두려움과 황홀함의 양가적인 정서를 투영해낸다. 불길 같은 산, 구름 같은 돌이 마치 떨어질 것처럼 일렁이는 은유의 세계다.

서른네 개의 아이콘을 문서 창에 띄워 두고, 가지런히 정돈된 파일명을 바라본다. 작품명에 앞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 붙인 일련번호가 직관적으로 눈에 띈다. 숫자에는 아이콘적인 성질이 있다. 1번부터 34번까지의 아이콘들은 실재하는 작품의 이미지 정보를 함축한다. 이들은 전시장 도면과 작품 목록, 각종 서류 프로그램의 시트 위에 소환되며 현실에서 일어날 사건을 요약하거나 암시한다. 뒤이어 나타나는 아이콘의 실체들, 즉 서른네 점의 작품들 또한 작가의 현재를 함의하는 아이콘이다. 새삼 그림들의 내용을 서술해야 했는지, 과연 그래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바라봄의 순간에 발현되는 총체적 감각과 그 해명의 문제에 관하여서다. 서사가 휘발하는 자리에는 더 큰 감각이 침투한다. 오늘의 그림은 아이콘적이다.

4. 전시 전경



5. 작가 약력

김은정

- 1986 경상남도 거제도 출생
-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1 가장 희미한 해,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흙커밍, 가변크기, 서울
- 2018 연기나는 사람, 에이라운지, 서울

단체전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 2020 구름의 일각, 공간서울, 서울
반짝이는 소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7 일현 트레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나의 영토, 의외의조합, 서울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 2016 버티컬 라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 20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피존밀크 포스터, 아르코 아트토크, 온라인 전시 선정
- 2017 서울은 미술관, 팝업, 무인예술서점 <쫓>, 서울
- 2016 동북부 미술대학 연계 발굴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잃고 싶지 않은 것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출판

- 『난민들기』(찬다프레스, 2021)
- 『잠』(찬다프레스, 2019)
- 공저, 『캐비넷. Vol.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8)
- 공저, 『탄생 쫓 책방』(찬다프레스, 2017)
- 공저, 『지면전시』(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수상

- 2017 일현 트레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박현정

- 1986 경상남도 창원(마산) 출생
-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1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19 슬라임 플러시,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웬즈데이 워밍업, 아카이브 봄, 서울
- 2017 이미지 컴포넌트, 합정지구, 서울

단체전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 2020 정보의 하늘에 가상의 그림자가 비추다, 아트스페이스3, 서울

- 그라데이션: 붉은색에서 금빛으로, 무니토 연남 소름, 서울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 2019 신생공간 - 2010년 이후의 새로운 한국미술, 켄론 카오스*라운지 고탄다 아틀리에, 도쿄
우연오차,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2018 카바 라이프 오픈 스튜디오 X 일민미술관, 일민미술관, 서울
디자인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라시 박물관 응용미술관, 라이프치히, 독일
- 2016 SeMA 비엔날레 - 미디어시티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아티언스 오픈랩, 옛 충남도청, 대전; 표준과학연구원, 대전
맥거핀: 대리인의 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프로젝트

- 2020 주어진, SeMA Café+,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8 소소름 X 박현정, 소소름, 서울
- 2015 정지 이미지,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아티언스 대전, 대전문화재단, 대전
- 2014 이미지 추적-분쇄-정렬,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 2013 아르코 신진작가워크숍, 인사미술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기획

- 2020 대기실 프로젝트 《전혀 예술적인, 영성한 미술관》 - 블라인드 스튜디오 추리극,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 2017-8 취미관, 취미가, 서울
-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이동혁

- 1985 인천 출생
- 201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1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수료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0 공회전,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침묵이 바위를 깰 때, 에이라운지, 서울
- 2018 식어가는 빛, 스페이스 나인, 서울

주요 단체전

-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디딜 곳 없는 사다리, 드로잉룸, 서울
- 2015 컬러 온 캔버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 2013 스카우트, 갤러리 이마주, 서울
- 2012 선(善), 서울시립 경희공미술관, 서울
공장미술제, 대안공간 루프, 서울

이정호

- 1984 뉴욕 출생
- 2012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 순수미술전공 졸업
- 2016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순수미술전공 석사 졸업
- 서울 및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0 나에게 보이는 흔적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부식의 추상 (쿠르시오 프로젝스 기획), 69 엘드리지, 뉴욕
- 2014 세상, 매체, 나, 필터, 갤러리마크, 서울

단체전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 2019 겨울을 아직 기억하는가, 리히튼파이어, 뉴욕
추상의 경계, 리히튼파이어, 뉴욕
LIC 아트 오픈: 프로그레션, 더 팩토리 LIC, 뉴욕
- 2017 체리 벨리 여름 조각 트레일, 체리 벨리, 미국
- 2014 쿠키 커터: 재정의된 현실들, 쿡 프로젝트, 뉴욕

레지던시

- 2018 장생포 아트스테이,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울산
- 2013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수상

- 2017 체리 벨리 조각 트레일, CV아트웍스, 체리 벨리, 미국

임선구

- 1990 인천 출생
- 2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0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종이 위의 검은 모래, 갤러리조선, 서울

단체전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낮선 여정, 드로잉룸, 서울

2020 세발로 걷는, 공간서울, 서울

2019 Y군의 불타는 비행기, LAB203, 서울

2018 페인터스 페인터, 2W (온라인 전시)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2016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퍼스트 에이드 킷, 갤러리 밈, 서울

2015 서울문화재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5,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 서울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생성된 풍경, 갤러리가비, 서울

2014 DV-VA, 아카이브 봄, 서울

프로젝트

2020 전시후도록, 웨스, 서울

출판

『숨은 산』(밀피유 타임라인, 2020)

『검은 모래』(2019)

공저, 『캐비닛 Vol. 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9)

수상

2017 특상,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소장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지근육

1985 서울 출생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2016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아트 & 사이언스 석사 졸업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박사 수료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20 조율된 선,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19 선분의 영역,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운동하는 감각, 스페이스 XX, 서울

2017 미성숙한 구, 63아트, 서울

실제의 역동성, 리디아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1 아이콘, 학고재, 서울

- 2020 작업의 온도, 일우스페이스, 서울
네개의 질문, 리디아 갤러리, 서울
- 2019 하이퍼 살롱,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아트369, 용산공예관, 서울
4482, 셀로아트 갤러리, 서울
사이드-비,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비스타아트, 비스타 워커힐 서울, 서울
언리미티드, 갤러리 B., 서울
도약으로의 여정,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갤러리, 서울
평평한 움직임, 정샘물 플롭스, 서울
- 2018 모호함 속의 명확함: 추출하는 사람들, 최정아갤러리, 서울
하이 플로우 스크린, 딜라이트 아트 월, 딜라이트 스퀘어, 서울
교학상장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악어와 악어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서울
미적 공범자, 스페이스 XX, 서울
뉴 택틱스, 백룸, 서울
- 2017 비트윈, 소피스 갤러리, 서울
- 2016 HIX 어워드, 유닛 런던, 런던
큐리어스?, 그래너리 광장, 런던
언폴딩 리얼리티스,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런던
- 2015 마인드 / 매터, 엘손 스튜디오, 런던
아이들이 못난 것은 당신 탓이다, 더 런던리, 런던